

영화로 만나는

하정웅 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미술가와 작품



'카라비지오'



'에곤 실레' 제작 과정.



'실레에 관한 모든 것'

27일 카라비지오...에드워드 호퍼·자코메티·에곤 실레 등 조대영 프로그래머 기획·강연...매월 마지막 水 선착순 무료

'영화로 만나는 미술가와 작품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분관 하정웅 미술관이 진행하는 '하정웅 미술관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가 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기획된 프로그램은 영화만 상영하던 데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가 기획과 강연을 맡아 미술가와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특징이다. 조 씨는 최근 영화 평론집 '영화, 림다'를 출간했으며 현재 광주일보에 '한국영화 100년사'를 연재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미술가의 삶과 그들의 치열한 예술혼을 만나보는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카라비지오, 에드워드 호퍼, 자코메티, 에곤 실레, 살바도르 달리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상영

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3시~6시(무료·선착순)까지 진행된다.

27일 첫 강의에서 만나는 미술가는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작가 '카라비지오'다. 1986년 제작된 데리저 감독의 영화 '카라비지오'를 통해 강렬한 명암대비와 빛으로 특징지어지는 카라비지오의 대표작을 만나본다. 영화는 후원자의 요구와 자신의 예술적·성적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카라비지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3월 27일 만나는 영화 '실레에 관한 모든 것'은 20세기 미국인 삶의 단면을 그린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는 현대인의 고독·상실감·단절을 포착해낸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영화다. 그의 작품 13점이 스크린으로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드는 영화로 '실레'라는 가상

의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호퍼의 화풍을 세심하게 스크린에 재현했다.

'걷는 사람' 등 가늘고 긴 조각으로 유명한 자코메티의 삶은 영화 '파일 포드레이트' (4월24일)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명배우 제프리 러쉬가 자코메티역을 맡아 명연을 펼치는 영화로 18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제임스 로드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구성했다.

또 지난해 서거 100주기를 맞은 에곤 실레의 삶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 (5월29일)과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초현실주의 영역을 개척한 살바도르 달리의 인생을 그린 '리틀 에쉬: 달리가 사랑한 그림' (6월26일)도 대기 중이다.

그밖에 잘톤 헤스톤이 주연을 맡고 '제3

의 사나이'의 캐롤 리드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고녀와 환희' (1965)는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며 '절규'로 유명한 노르웨이인의 대표화가 몽크의 삶은 피터 왓킨슨 감독의 에드바르트 몽크 (1974)를 통해 들여다본다.

올해는 건축을 다룬 영화도 준비했다. 영화 '콜롬버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콜롬버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치유의 영화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콜롬버스'는 '모더니즘 건축의 메카'로 불리는 곳으로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I.M.페이의 작품 클레오 로저스 기념 도서관 등 영화 내내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물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밖에 우디 알렌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1920년 파리의 예술계를 만날 수 있는 '미드나잇 인 파리' (2011)와 '나는 엔디 워홀을 쏘았다' (11월27일)도 대기 중이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친구들의 두번째 클래식

28일 광주 금호아트홀...야채·코바야시 부부 등 출연



야채·코바야시 부부(왼쪽)와 엄광용씨.

클래식 무대에서 인연을 맺은 연주자들이 꾸미는 공연이 광주에서 열린다.

'좋은 친구들의 두번째 이야기'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인 이 공연에는 올해도 바이올리니스트 야채, 비올리니스트 히데코 코바야시 부부가 함께한다.

독일 예센국립음대 교수인 야채는 하일리겐베르크 성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여름음악학교 총감독을 맡고 있다. 아내 코바야시는 1989년 뮌헨 ARD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지난 1991년부터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야채 부부를 사사한 비올리니스트 엄광용(광주시향 수석단원)이 총감독을 맡았다. 출연진은 독일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 또는 연주회에서 만난 음악인들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시향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과 이수연(바이올린·시향 상임수석), 주민혁(클라리넷·시향 수석), 박석윤(비올라·시향), 최주연(첼로), 김가람·서현일(피아노)이 출연한다. 이들은 바흐 '4대의 비올라를 위한 사콘느 작품 1004'와 슈만 '피아노 사중주 내림 마장조 작품 47', 다리우스 미요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157b', 브람스 '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로 호흡을 맞춘다.

한편 각 연주자는 공연에 앞서 27일까지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10-3646-795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단원·시민연극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 (대표 이당금·오성환)이 신입단원과 시민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26주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은 '그해 오월의 진혼곡 세', '짬뽕', '오월의 신부', '그들의 새벽' 등 오월 광주를 다룬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푸른연극마을의 전용극장 씨어터 연바람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동명로 19-10 아트벨리츠 지하 1층)에 세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세계명작연극 안톤체홉 시리즈', 오월장작연극 '오월의 석류', '사돈연니',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 6대 도시 순회공연, '소극장 낭독 콘서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배우나 희곡 작가를 꿈꾸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입단원에 지원할 수 있다. 3개월 인턴교육을 거친 뒤 상임단원이 되면 기본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푸른연극마을은 '시민연극교실-희곡낭독극'에 참가할 5기 시민배우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회), 카프카의 '변신' (2회), 헨리크 비베르의 '3회' 등 세계의 명작 소설과 희곡을 다뤘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3월부터 셰익스피어 작품 등 명작 희곡을 전문 배우와 함께 읽고 분석·낭독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5시 30분 낭독 훈련을 하고 2개월 과정이 끝나면 낭독극 발표회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연극마을 인터넷 카페(cafe.daum.net/pyj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6-244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웅서사시 '마나스'와 떠나는 유라시아 기행

문화전당, 내일 스토리텔링 진행...4월말까지 전시

'마나스'는 키르기스스탄의 민족 서사시를 일컫는다. 서사시 그 자체를 '마나스'라고도 하지만 주인공의 이름 또한 '마나스'라고 불린다. 일반인에게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 최고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보다 길며 '마나스'를 전하는 전문가를 '마나스치'라고 부른다.

중앙아시아 영웅서사시인 '마나스'를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중앙아시아 영웅서사시 마나스와 함께 떠나는 유라시아 기행을 펼친다. 26일 오후 2시부터 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기획전3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나스: 유네스코 등재 인류 최고의 서사시' (4월30일까지·사진) 전시와 함께 특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마나스와 함께 떠나는 유라시아 기행'을 선보인다.



마나스가 속한 키르기스민족은 몽골고원과 시베리아 예니세이 강 상류에서 살다가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유목민의 후예다.

이들은 현재 파미르고원 북부, 타림 분지 서부, 천산산맥의 남부 지역과 페르가

나 동부지역에 거주한다. 특히 키르기스민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궐계열 민족 중 하나로 고구려나 발해의 이웃민족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라시아 민족학 전문가인 ACC 전봉수 전문위원이 1일 특별 도슨트로 참여해 키르기스민족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며 ACC 페이스북 공식 계정(http://facebook.com/asiaculture-center)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한다.

전시 관람과 특별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마나스 기념엽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로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
SINHYANGPARK HOTEL & RESORT CLUB